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0.(금) 10:00
(지 면) 2026. 11. 20.(금) 석간

지역자율방재단, 겨울철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재난대응 의사소통 역량, 드론 활용, 대응 사례 공유 등 3개 과정 운영
- 대설·한파 등 겨울철 대책기간 중점 활동 사항 교육 및 활동 참여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0일(금)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의 지역자율방재단원과 담당 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 출범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은 전국에 약 6만 9천 명이 있다. 위험지역 예찰, 주민대피 지원, 재난피해 복구와 이재민 관리 등 재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대표적인 민간 방재 조직이다.

특히 올여름 경남 거제에서 호우로 대피가 어려운 주민 20여 명을 경찰·소방과 협업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경기 시흥과 충남 당진에서는 폭염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구조하는 등 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방재단이 실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현장을 이끄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 ▲재난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법 ▲현장 경험이 담긴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했다.

방재단은 이번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파 쉼터 점검, 상습 결빙 지역 예찰, 염화칼슘 살포 등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대설·한파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만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겨울철 재난 대비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을 갖춰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5210)
		담당자	사무관	황연규 (044-205-5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